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장흥 신리 매생이 스낵·어묵 품평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고품 신령 마음미역, 해남 입하 바다김 그대로 김국, 장흥 수문 키조개 스낵 등에 이어 장흥 신리의 매생이 스낵과 어묵을 개발해 지난 25일 장흥 신리 매생이권역센터에서 품평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품평회에는 강재선 어촌계장, 전선영 사무장, 완도해양바이오연구센터 안병제 박사, 여수(주)아라움 김미선 대표, (주)해도식품 박민수 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보인 매생이 스낵은 장흥 특산물인 매생이를 10% 이상 사용해 쌀가루로 반죽해 튀겨서 만들었으며, (주)아라움에 제조를 맡았다. 어묵은 매생이와 어육을 혼합한 고급 어묵으로 (주)해도식품이 만들었다. 센터는 장흥 신리의 매생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제품 개발, 개선 등을 반복해왔다. 안병제 박사는 "이번 상품은 맛과 질, 건강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가격을 잘 정할 경우 우리 수산물로 만든 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유행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날 품평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상품과 디자인을 보완한 뒤 추석 연휴 전에 출시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센터는 이날 품평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상품과 디자인을 보완한 뒤 추석 연휴 전에 출시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제학 연우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광주시장 표창

외국인 주민 무료 진료 봉사 등

"수십여 명의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고생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오래 봉사를 하고 있어 대표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도와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제학(49·사진) 연우가정의학과의원 원장(광주시의사회 부회장)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 유공자로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설 원장은 지난 27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외국인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설 원장은 2014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 선배의 추천으로 이주민건강센터와 인연을 맺은 그는 이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진료를 받으러 갈 곳이 없고, 의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을 10년째 돌보고 있다. 개인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한 후 일요일 오후 이주민건강센터에서 혼자 80여 명을 돌보는 등 산업 현장에서 여러 질환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다. 또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주민건강센터 진료가 중단될 위기였지만, 만성



질환자를 돌보기 위해 유리벽을 두고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를 이어왔다. "환자를 진료하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휴일에 진료를 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삶의 지혜를 얻고 에너지를 얻으며 오히려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 요즘에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건강한 삶과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작은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2005년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로 출범해 올해 개소 19주년을 맞은 (사)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광주시 비영리단체다. 약 2000명의 전문 의료인, 의대생,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매주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40여개국 5만5000여 외국인 주민 환자들을 돌봐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제11기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수료식



제11기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학장 박기종·대표 고광현) 수료식이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사무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강사랑환경대학은 지난 6월5일 개강, 모두 14강에 걸쳐 진행했으며 정병연씨 등 2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강좌는 재정기 전남대 명예교수,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이론 강의와 함께

대추천 반딧불이 서식지,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메 탐사터 습지, 광주시립수목원, 광주환경공단(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탐방이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환경정화 공익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기모임을 조직할 예정이며 환경부 주관 명예 환경감사원 가입도 논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한국광기술원

광영상정보 분야 교육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LINC3.0사업단은 최근 한국광기술원 광영상정보연구본부와 모바일 및 광영상정보 분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리티 및 광영상정보 분야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 상호발전을 위한 정책 연계와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대학교 제공>

오진 호남대 교수, 네이처 HSSC지에 논문 발표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오진(진우·사진) 교수가 최근 네이처의 HSSC(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지에 '제조업 집적이 CO2 배출에 미치는 시간적 및 공간적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의 제 1저자로 새로운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동적 공간 터빈 모형'(Dynamic Spatial Durbin Model)을 사용해 제조업 집적이 탄소 배출 감소에 미치는 내부 메커니즘과 공간적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HSSC는 네이처의 유일한 사회과학 학술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인사

- ◆광주대학교 ▲부총장 김갑용 ▲부총장 겸 교육혁신처장 장미영 ▲대학원장 윤대환 ▲보건복지대학장 김미경 ▲공과대학장 최재완 ▲AI양트십대학장 박인우 ▲기획처장 나종희 ▲입학처장 김은실 ▲국제협력처장 이기표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07:00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40 생방송 오늘아침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8:00	25 아침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중계식	4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50 좋은아침
09:00	30 KBS 뉴스 930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10:00	00 방학특선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도병사의 비밀(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도현의 고백>	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30 도닥도닥 꼬보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르 파리	15 보령머드축제 개막기념 (K-POP SUPER LIVE)	00 12 MBC 뉴스 2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13:00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0 시크릿 주유 별의 보석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14:00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25 남도지오그래피(재) 4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여기는 파리 <배드민턴/탁구/양궁/펜싱 유도/사격/수영>	55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펜싱/양궁/유도/수영/사격>	00 뉴스브리핑
15:00	50 2024 파리 올림픽 <배구>			00 SBS 파리 2024 <배드민턴/유도/수영/펜싱/사격>
16:00				
17:00			20 MBC 뉴스데스크 50 2024 파리올림픽 <펜싱/양궁/유도>	
18:00	00 KBS 뉴스 9	00 여기는 파리 <펜싱/양궁/탁구/유도>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SBS 파리 2024 <양궁/탁구/유도/배드민턴>
19:00	00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탁구/수리력>		30 2024 파리올림픽 <펜싱/양궁/유도>	00 SBS 파리 2024 <양궁/탁구/유도/배드민턴>
20:00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유아 클래식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5:30 클래식	10:10 탑골스타 개칭이	16:55 슈퍼스타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7:10 명탐정 피트4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7:00 미스터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EBS 뉴스
07:15 빅 블루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크 스페셜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탑골스타 개칭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30 오우오우 내 새끼
08:20 한글용사 이야기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오지개 좋은 스리랑카-오지의 극한직업>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15 클래식	21:35 한국기행 <노는 것을 하노라 1부 항공계급 삼총사>
08:50 도레미 프렌즈	15:55 볼록스	21:55 PD로그
09:00 뒤죽박죽섬의 빅포패밀리 쇼츠	16:1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EBS 다크프라임
09:05 엠마 까투리	16:30 페퍼 피그	
09:20 미리 가본 대학	16:40 마사와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음 6월 24일 甲午) ☎ 010-9790-8237

<p>36년생 사태를 예견하며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면 무탈하리라. 48년생 미연에 조치해 둔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60년생 지난 세월 동안의 누적된 원인을 차치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해야겠다. 72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 84년생 거주장소라든 바려도 된다. 96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70</p>	<p>42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54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66년생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78년생 이해 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 90년생 자제해야만 원만하게 보존할 수 있느니라. 02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15, 87</p>
<p>37년생 보기에겐 시원찮았던 것이 한뼘하리라. 49년생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61년생 구태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73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85년생 부화뇌동하다가 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97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여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01, 85</p>	<p>43년생 끈질기게 밀어붙인다면 성취하리라. 55년생 예감을 무시하다가는 큰코다친다. 67년생 지나친 기교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79년생 절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91년생 가까운 이에게 꼭 챙겨 줘야 할 일 있다. 03년생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거든 속속들이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08, 74</p>
<p>38년생 부지런한 이가 선점하게 되는 법이니 방심하지 말고 진력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한다. 50년생 집중한다면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62년생 가능한 일이니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4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86년생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9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9, 60</p>	<p>44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로써 판단할 일이다. 56년생 바람직한 계기가 조성되어 가는 마당이니라. 68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0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니라. 92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04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6, 91</p>
<p>39년생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뜻있는 날이다. 51년생 중추와 경중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배를 해산하면 하느니라. 63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75년생 노파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87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99년생 누락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67</p>	<p>45년생 그대로 놔둔다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57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론 셈이다. 69년생 자기 확신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81년생 맹목적인 집착은 소모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93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05년생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5, 88</p>
<p>40년생 물줄기가 새겨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법이다. 52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64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수용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겠다. 88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룩하면 시의적절한 판세를 이루게 된다. 00년생 별난 것을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 96</p>	<p>46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58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되리라. 70년생 기쁜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다. 82년생 뻔히 다 예견하면서도 일부러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94년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정황도 아니다. 06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7, 95</p>
<p>41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53년생 기정 사실화 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65년생 사소한 국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77년생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89년생 추호라도 탄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01년생 생리 단계를 들어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2, 92</p>	<p>35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47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명확한 나타난다. 59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71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상생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95년생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94</p>